

전도된 수치심의 역사와 죄의식의 시간

— 김숨의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읽기

류 보 신*

요약

이 글의 목적은 김숨의 두 편의 특이한 소설, 『군인이 천사를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를 읽는 것이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종군위안부의 호모사케르적인 삶을 기존의 소설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기존의 소설들이 종군위안부의 비극적 삶을 현전시키기 위해 그녀들의 삶을 작가의 역사철학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김숨의 두 소설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경험을 초과하여, 그것도 과도하게 초과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녀들의 실재적인 말들을 그저 듣고 옮겨적는다. 이를 우리는 ‘듣기의 소설’, 리깅의 말을 빌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구두법적 증언소설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두 소설은 식민지 종군위안부의 호모사케르적 삶을 실감나게 재현하는데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두 소설은 듣기의 철학에 충실한 덕분에 그녀들의 실존 형식에 옹크리고 있는 탈-존의 가능성까지를 길어 올린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값진 성과이자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김숨, 종군위안부(혹은 일본군 성노예), 듣기 소설, 구두법적 증언소설, 호모사케르, 수치심과 죄의식, 반성과 용서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혹은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의 문제성
2. ‘듣기 소설’의 탄생과 그 잠재성
3. 세 개의 ‘나와 대화의 힘 -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의 경우
4. 피해자의 죄의식과 그 죄의식의 윤리성 -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의 경우
5. 전도된 수치심의 역사와 죄의식이라는 윤리

1. 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혹은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의 문제성

원래 계획했던 만큼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최근에 간행된 김숨의 두 편의 특이한 소설, 『군인이 천사를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¹⁾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²⁾를 읽는 것. 목적이 뚜렷해서 복잡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지 장담하기 힘들다. 만약 어떤 작품을 최종적으로 읽어낸다는 것이 그 작품에 웅크리고 있는 진리내용을 불러올리는 것을 함축한다면 더욱 그렇다. 차차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읽을 김숨의 두 편의 소설은 간단하게 읽고 말 소설이 아니다. 『천사』와 『송고함』에는 각기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 증언집 ‘일본군 ‘위안부’ 길원옥 증언집’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김숨의 두 권의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과 길원옥의 증언을 중핵

1) 김숨,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주)현대문학, 2018. 이하 『천사』로 줄여 사용하고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면수만 명기할 것임.

2) 김숨,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주)현대문학, 2018. 이하 『송고함』으로 줄여 사용하고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면수만 명기할 것임.

으로 하는 소설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승고함』을 읽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증상과 조우한다는 것과 그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증상을 치유할 방법과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길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문학이라는 제도가 호모사케르적 존재가 겪은 상징질서 너머의 고통을 재현할 수 있는지, 재현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도 비켜 갈 수가 없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너끈하게 답할 식견이 아직은 없다. 하지만 가보려 한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김숨의 『천사』와 『승고함』을 읽는 것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증상과 그것의 문학적 재현(불)가능성과 만나는 일이다. 우리가 읽을 김숨의 두 편의 작품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혹은 성노예의 실존 형식을 소설화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김숨의 두 편의 소설에는 우리의 상징질서가 집요하게 폐제시키고자 했던/하는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실재들이 들끓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의 실존 형식이 이중 혹은 삼중억압의 삶 그것일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이중, 삼중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녀들의 삶엔 그 당시 세계사의 모든 모순은 물론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역사의 모든 부조리가 켜켜이 기입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우선 그녀들의 수난은 그녀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2차 세계대전과 비껴갈래야 비껴갈 수가 없다. 2차 세계대전이란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선진 제국주의 국가가 거의 독점하던 식민지 지배 이익을 나누려고 하고 선진 제국주의 국가는 이익의 분점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탐욕의 전쟁이다. 그들은 오로지 제국의 이익, 아니 제국의 소수 지배자의 무한한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자국의 민중은 물론 각국이 거르니고 있던 식민지 민중까지를 강제로 동원하여 벌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로 인해 전 지구가 초토화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모

든 생명체가 전쟁-기계들의 처참한 살육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전쟁,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다.

그중에서도 일본 제국은 특히 전쟁-기계들의 전투력을 배가하기 위해, 그러니까 전쟁-기계들의 살육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로 삼는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충동에 휩싸인 전쟁-기계들의 폭력성은 전쟁의 특유의 '실재에의 열정'과 합쳐져 인간이 저지러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 이상을 간단하게 넘어서는다. 거기에 인류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남성성 안에 잠복된 페미사이드적 충동과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광기의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져 일본 제국의 전쟁-기계들이 일본군 위안부 각각에게 가한 폭력은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치닫는다. 상징적인 질서 자체 안에 내장된 인식론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성에 더해져 상징질서를 넘어서는 히스테리적 폭력까지 더해졌다고나 할까. 아니면 법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에다 법을 넘어서는 폭력성이 합쳐진 그 중층화된 과잉의 폭력이 전혀 법이나 도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집중 투사되었다고 할까. 그 고통과 치욕은 끔찍하고 처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생존하는 모든 순간이 공포이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치욕의 순간이기도 하다. 아니, 이 말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적절하지 않다. 그녀들의 고통과 치욕은 일상적인 감각으로 측량불가능하고 일상의 언어로 재현불가능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과 치욕 속에 수많은 그녀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극한상황 속에서 죽어갔고, 그중 몇몇은 운 좋게도, 아니 불운하게도 살아서 돌아온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어 힘겹게 돌아왔건만 그녀들을 기다린 것은 진심 어린 위로도 애정 어린 환대도 아니다. 전쟁은 전쟁 중에도 격렬하지만 전쟁 후에도 이어진다. 전쟁 중 전쟁이 전쟁-기계들끼리의 오로지 생존을 위한 충동적 격돌이라고 한다면 전쟁 후의 전쟁은 전쟁-기계들이 다시 일상적 인간 혹은 상징질서 안의 인격으로 돌아가

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사적 성격 때문에 계급적 적대가 항구적이듯, 전쟁 후의 전쟁은 전쟁의 공공성과 (전쟁) 책임의 사적 성격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쟁투가 발생한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민중을 전쟁에 동원한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으로 자신의 국가의 모든 생명을 도탄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반성하거나 사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쟁 때 내건 명분을 다시 앞세우며 통치(성)의 최상 권좌로 복귀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인-기계였던 전쟁-기계들 역시 국가가 내세우는 전쟁 명분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상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며 전쟁 중 자신의 행위를 방어해낸다. 즉 과잉의 폭력을 행했던 전쟁-기계들은 전쟁에서의 원장면들을 다른 덮개-기억으로 덮어두고 오로지 전쟁의 피해자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장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을 구사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행한 폭력은 원천적으로 덮고 자신이 당한 폭력만을 기억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겪었던 살아 있는 존재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극한상황을 겪은 그녀들에게 지독한 악몽을 한 번 더 떠안긴다. 그녀들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가했던 제국과 제국에 순종했던 신체들은 그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에 철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그녀들에게 상징적이고 사후적인 폭력을 가하는 까닭이다. 그녀들을 인간 이하의 성노예로 삼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국이야말로 명분있는 전쟁을 벌이다가 더 큰 제국에 굴복당한 희생양이며 전쟁-기계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그것도 명분있는 전쟁에 단순히 동원되었던 피해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혈안이 된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그들이 그녀들에게 가한 차마 형용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행위를 집요하게 부인하고 조작한다. 제국과 제국의 전쟁-기계들은 그녀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고 왜곡한다. 그들은 그녀들의 위안부의 삶이 계약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

이 그녀들에게 가한 광기에 빠진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새디즘적 가학조차도 그녀들의 과장이라고 서슴없이 공언한다. 더 나아가 뻔뻔하게 들어보라고 말한다. 그녀들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고. 인간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 우리 모두가 경악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만행을 행한 자들이 자신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고 부인하는 식이다.

이렇게 제국과 제국의 전쟁-기계들은 이미 죽은, 그리고 어렵게 살아남은 그녀들의 역사와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상상하기 힘든 폭력을 가한다. 이 폭력은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상징적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이다. 상식 차원에서 말하자면 관조차 없는 시체들을 꺼내 다시 죽이는 2차 가해이자 사후(事後, 死後)적 폭력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죽은 그녀들은 상징적 폭력에 의해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녀들은 또 한 번의 극한상황에 내몰린다. 또 한 번의 죽음에 직면한 그녀들은 당연히 그녀들이 경험한 고통과 치욕을 증명하고 증언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녀들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은 그녀들의 고통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아니 남아 있는 기록은 그녀들의 고통과 치욕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역능을 행사한다. 인간 이하의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도 인간 이하의 행동을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제국은 이후 자행될 인간 이하의 행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 장치를 통해 미리 대비해놓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교묘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놓은 셈이라고나 할까. 그러므로 그녀들이 그녀들의 고통과 치욕을 증명할 방법은 그녀들 몸에 남은 흔적과 그녀들의 기억 뿐이다. 결국 그녀들은 ‘내가, 내 몸이 증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녀들의 몸에 남은 흔적이 곧 그녀들의 치욕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며 그녀들의 기억 또한 기억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닌 그녀들은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불안정하고 히스테리적이다. 그녀들의 기억은 단편적이고 때로는

자기모순적이다. 자기기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겪은 처참한 사건 그것을 온전하게 기억하고는 그녀들 자신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들은 견디기 힘든 원장면들 상당 부분을 무의식의 저편으로 묻어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당연히 많은 기억들이 떠돌아 다니는 편린들의 형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무의식의 저편에 구석구석 산포되어 있는 기억들을 어렵게 끌어모아 이루어지는 증언은 그러므로 일관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 또한 상징질서 바깥의 경험들은 측량이 불가능하고 언어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녀들이 어렵게 묻어두었던 실제적 기억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녀들의 기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상징질서에 대한 불순하고도 불경스러운 도전으로 부인되기 쉽다. '설마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던 말인가?' 하는 일상적 감각이 그녀들의 실제적 기억 혹은 경험보다 제국과 전쟁-기계들의 상징 조작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

결국 진화한 적들은 그녀들을 두 번 죽이고, 그 적들 속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그녀들은 두 번 죽음에 직면한다.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들은 그간 인류가 이어왔던 빌어먹을 통치성과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적 폭력에 맨몸으로 노출된 인류 역사 최악의 희생양들이다. 아니, 그녀들은 광기의 전쟁 혹은 파괴된 이성에 제물로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누구로부터도 희생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호모 사케르들이다. 그런 까닭에 일본군 위안부들의 실존 형식은 그녀들이 그 견고한 통치성 전체 혹은 상징질서 그것과 맞설 용기를 가질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폐쇄되어 왔다. 더 일찍 용기를 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한 그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 그녀들의 목소리는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통치성의 원리와 그 통치성을 틀어쥔 진화한 적들에 의해 한갓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으로 억압되곤 했다.

죽었으나 죽지 못한, 살아 있으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 그녀들의 유

령적 삶이 상징질서 안으로 귀환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단편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던 그녀들의 피맺힌 절규가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원초적으로 억눌려 있어서 그야말로 산포되어 있던 폭력의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 나뭇의 서사를 갖추는 데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런 오랜 시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녀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들의 귀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외면했던 공포의 장면들을 드디어 응시해낸 그녀들의 용기와 그녀들의 수시로 달라지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준,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실재들을 그러모아 나뭇의 개연성 높은 스토리로 누벼낸 그녀들의 원조자들의 인내심이 합쳐져 만들어낸 힘겨운 결실이었던 셈이다.

김숨의 『천사』와 『송고함』은 바로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들의 실존 형식을 다룬 소설이다. 우선 굉장한 모험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거의 측량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언어로 재현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존재들이 그녀들인 까닭이다. 또한 그녀들 고백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신 말할 수 없었던 인류사의 원장면이 아니던가. 하지만 김숨은 그녀들의 실존 형식을 과감하게 소설화한다. 일상적인 언어가 도달하기 힘든 과잉과 과소의 세계를 현재적 맥락 속에 충만하게 재현했다는 점만도 충분히 의미 있다 할 수 있는데, 김숨의 두 편의 소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루어낸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녀들의 실존 형식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자로서의 가능성 혹은 탈존의 가능성까지를 길어 올린다.

정리하자면 김숨의 최근 두 편의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수난과 그 수난 속에서 힘겹게 피어난 진리의 빛을 꺾진하게 재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쉽지 않은 일을 성취해낸 김숨의 『천사』와 『송고함』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과정과 미적 장치, 그리고 그러한 성취가 지니는 문제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계기로 그간 한국문학사가 정작 들었어야 했으나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말들을 소설 속에 끌어들이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숨의 최근의 두 편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혹은 문학의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묻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김숨의 두 편의 소설을 읽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은 물론이다.

2. ‘듣기 소설’의 탄생과 그 잠재성

아감벤은 그의 유명한 저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에서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 증언하는 행위의 아포리아에 대해 말한다.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은 생존자들에게는 유일한 진실이고, 그러한 것으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진실은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것, 즉 진실을 구성하는 현실적 요소들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생생해서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참일 수 없는 사실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실적 구성 요소들을 초과하는 현실. 그것이 아우슈비츠의 아포리아”³⁾라고. 이는 일레인 스캐리가 고통과 같은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의 아포리아에 대해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고통은 명료하게 표현되지 못한 채로 남겨나, 처음으로 명료하게 표현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을 침묵시킨다.”⁴⁾ 즉 개인이 경험한 극단적인 고통은 그 과잉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며 혹은 그 극한상황이 그에 걸맞는 표현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징질서의 맥락 속에 자리잡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일 터이다. 사실

3)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살아남은 자들』, 새물결, 2012, 15면.

4) 일레인 스캐리, 메이 옮김, 『고통받는 몸』, 오월의 봄, 2018, 99면.

굳이 아감벤과 스캐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상징질서의 작동이 중지되고 억눌렸던 충동이 무한정 분출되어 발생한 폭력적 상황은 좀처럼 언어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언어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징질서라는 맥락 안에 위치시키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악몽을 경험한 당사자의 경우는 그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 타인의 진심어린 정서적 유대를 끌어내기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작가의 경우는 그것의 사건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 폭력의 밀도와 실감을 재현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간혹 문학이라는 제도가 그 사건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극한의 역사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호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극한적 고통의 측량불가능성과 재현불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일본군 위안부의 삶이 그 비극적 상황과 탈-존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이 그녀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호명하고 귀환시키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 이래 꽤 많은 작품들이 그녀들의 삶의 과정을 소환했으나 그 작품들 대부분이 그녀들의 삶의 실재성을 꺾진하게 재현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우 그녀들의 비극성을 전면화하기 위해 전시 강간적 상황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전시하거나 아니면 그녀들의 탈-존적 성격을 강조하게 위해 그녀들의 용서의 결단을 지나치게 신비화한다. 이것은 작가들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적 구성 요소들을 초과하는 현실’의 연쇄인 그녀들 삶의 극한상황적 삶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사실적 구성 요소를 초과하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다 보니 그녀들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녀들의 찾아보기 힘든 윤리성을 오로지 경외의 시선으로 예찬했던 셈이다.

그런데 김숨의 『천사』와 『송고함』은 그녀들의 극한상황적 삶 자체가 머금고 있는 아포리아를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숨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듣기 소설’⁵⁾을 시

도한다. 『천사』와 『숭고함』에서 작가는 최대한 자신의 말을 멈춘다. 그리고 오로지 듣는다. 어쩔 수 없이 그녀들의 말은 파편적이다. 갈피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서사도 없다. 총횡무진, 아니 갈팡질팡인 경우도 있다. 때론 기억들 끼리 충돌하기도 하고, 선후가 뒤바뀌기도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듣고 기록한다. 그녀들의 뒤엉킨 증언을 듣고 받아 적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개입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임상학적 개입을 한다. 증언자가 상징질서 바깥의 실재적인 기억, 그러니까 ‘사실적 구성 요소를 초과하는 현실’들의 연쇄에 대해 마음껏 말하게 하되 최소한의 분석가적 개입을 실재적 기억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자기이해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

『천사』와 『숭고함』의 작가(들)이 행하는 분석가적 개입의 방법은,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라캉이 말하는 구두법과 절분법을 연상시킨다. 즉 그녀들의 말을 받아 적되 구두점 정도를 덧붙여 그녀들 말의 실수나 이중적인 의미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그를 통해 듣는 사람이 분명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녀들 스스로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의식을 해석하는 과정 속으로 그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아니면 어느 순간 듣기를 멈춤으로써 그녀들이 어떤 말이란 하게 하는 대신에 그녀들의 실재적인 기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구두법과 절분법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듯 『천사』와 『숭고함』의 역시 분석가처럼 그녀들과 같이 생활하며 구두법과 절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녀들의 안에 있는 실재적 기억을 모두 끌어내어 그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며 또 때로는 시차가 존재하

5) 이 개념은 일본의 철학자 와시다 키요카즈의 『듣기의 철학』에서 따온 것이다. 키요카즈는 이 책에서 『듣기의 철학』에서 이제까지의 철학이 철학자들의 철학적 성찰을 주로 설파하는 철학이었다면 이제는 ‘듣기의 철학’으로 전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고통받는 인간(homo patiens)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철학은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면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리를 빛을 던져주려 하는 대신에 타자의 고통에 대해 귀기울여 들어주면서(다시말해 고통에 대해 말하게 하면서) 임상학적 개입을 통해 자기이해를 이끌고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는 그것을 들은 그대로 기록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앞질러 결론을 말하자면,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도저히 언어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녀들의 사실적 구성 요소나 일상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인식론적 범주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물론 그녀들의 말을 직접 들은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소설들은 그녀들의 말을 옮겨적는 방식으로 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징질서 너머의 실재적 기억이기에, 그리고 '사실적 구성 요소를 초과하는 현실'이기에 그것을 작가 개인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은 핏진성을 획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말도 안되는 꾸며낸 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을 다룬 소설들은 대부분 그녀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왔던 김숨 역시 『송고함』과 『천사』 이전에 그와 같은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한 명』과 『흐르는 편지』가 그것이다. 『한 명』과 『흐르는 편지』는 나름의 이야기들을 짜놓은 후 그 디테일은 그녀들의 증언집에 나오는 디테일들을 '인용'의 형식으로 채워넣는다.

정액을 삼키라고 했다.⁷⁸

그녀가 싫다고 하자 군인은 군복 허리춤에서 주머니카를 뽑아 들더니 다다미에 꽂았다.

소녀들은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권총으로 아래를 쏘기도 했다.

총구멍이 겨누는 곳, 세상 모든 인간이 빚어지는 곳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는.

어느 날 일본 장교 하나가 총으로 명숙 언니의 아래를 쏘았다. 명숙 언니가 매를 맞으면서도 반항을 하니까. 실신했다가 깨어나서도 반항을 하

니까. 총알은 명숙 언니의 자궁을 뚫고 나갔다. 죽지는 않았지만 명숙 언니의 아래는 호박처럼 썩어들었다.⁷⁹

정액을 삼킬 때 그녀는 똥을 먹는 게 낫다 생각했다.⁸⁰

어쩔 수 없었으리라. 고백, 증언 등 그녀들의 말을 빌지 않고서는 그녀들의 실제적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아니, 만약 작가의 언어로 그것을 자기화할 경우 그것 자체가 그녀들의 경험 혹은 그녀들의 언어가 가지는 실재성을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일 수 있으므로. 결국 『한 명』과 『흐르는 편지』가 그녀들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녀들의 표현을 약간 변주하는 수준의 디테일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 명』과 『흐르는 편지』 두 편 모두 일본군 위안부들이 인류 역사의 모든 부조리가 집약되고 응축된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예외상태적 상황에서 겪었던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경험을 나름 충실하게 재현하는 한편 그를 통해 인간 전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성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명』과 『흐르는 편지』의 성과는 그 소설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녀들의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실제적 경험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러한 ‘인용’에 근거한 디테일과 그 디테일들을 절합하기 위해 설정한 이야기들 사이의 필연적인 배리는 작품에 대한 물임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결과는 낳고 만다. 아마도 이제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여러 소설들이 대문자 역사에 의해 오랫동안 교묘하게 은폐된 그녀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그것을 미학적 성과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했던 것도 김숨의 『한 명』과 『흐르는 편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의 아포리아는 소설적 재현의

6) 김숨, 『한 명』, (주)현대문학, 2016, 53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사』와 『송고함』은 이러한 그녀들의 삶이 지나는 근본적인 아포리아를 혁신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그것은 전적으로 두 소설이 ‘듣기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흙을 땅에 묻어주었어…….

가다가다 떠올라. 남동생이 손을 흔들던 모습이 눈에 선해…….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 질렀어.
“누나 — 빨리 갔다 와!”

기차를 타고 갔어. 초록색 윙퐁치마를 입고,
기차가 두만강을 건넜어.

나도 울 때가 있어…….(『천사』, 7면.)

나는 안개 속에 살아……안개 속에서 잠들고 깨어나지.
안개 속에서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지.

안개 속 어딘가 내 거울이 있어.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라는데, 내가 나를.
그 거리는 무無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바다가 그리워.

내가 그립다는 말을 다 하네.

나는 사상이 좀 다르지

내 몸이 작지, 내 몸이 참 작아.

내 몸은 고아孤兒처럼 작는데……

내 뒤에 아무도 없어. (『송고함』, 8~9면.)

『천사』와 『송고함』의 서두다. 전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이 아니다. 거의 질서화되지 않은 말들, 그러니까 자유연상의 언어에 가깝다. 하지만 작가는 그녀들의 말을 자신의 체계적인 문장으로 바꿔 읊기지 않는다. 작가는 그녀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녀들의 떠도는 편린에 가까운 말들을 듣고 그 흩어진 말들에 약간의 구두점을 찍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그녀들의 말을 빌어 그녀들의 삶을 재현한다.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녀들의 말이 질서가 없는지까지를 이해하게 하는 ‘의식의 흐름’에 가까운 말의 배열을 통해 『천사』와 『송고함』은 그녀들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실재적 삶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자기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진술은 그녀들의 진술을 의심하게 하기보다는 그녀들의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그녀들의 실존 형식에 가장 적합한 서술로 다가온다. 어느 곳에선가 지적은 “외상적인 체험을 한 주체가 결점이 있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보고의 진실성을 증언한다. 왜냐하면 보고의 결점은 보고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 보고된 형식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때문이다”⁷⁾라고 한 적이 있거니와, 이에 따르면 『천사』와 『송고함』의 자유연상에 가까운 혼란스러운 발화들은 그녀들의 악몽에 가까운 실재와의 조우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천사』와 『송고함』은 두 일본군 위안부의 자유연상적인 증언들을 충실하게 그러모아 그녀들의 실재적인 삶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녀들의 고통을 꺾진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제까지 일본군 위안부들의 삶

7)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옮김, 『분명 여기에 뼈 하나가 있다』, 인간사랑, 2016, 173면.

을 다룬 소설들의 한계를 지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설의 새 역사를 연 문체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듣기 소설’이라는 새로운 시도 덕분이며,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 덕분에 일본군 위안부의 실존 형식이 진정으로 문학적 표현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3. 세 개의 ‘나’와 대화의 힘 -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의 경우

앞서 잠깐 언급했듯 『천사』는 일본군 위안부 김원옥의 증언을 받아 적은 소설이다. 그녀가 일상 생활에서 불쑥불쑥 던지는 말들과 그 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녀의 증언은 혼란스럽고 자기모순적이고 때로는 시차에 대한 오인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을 통해 제시되는 그녀의 실존 형식은 남근중심의 인류의 대문자 역사가, 그리고 한국의 대문자 역사가 얼마나 많은 하위주체들에게 구조적 폭력 혹은 폭력적 구조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동시에 그러한 호모사케르적 존재들의 외침을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하고 외면하고 있는가를 아프게 환기시킨다.

여기, 그야말로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열세 살의 소녀가 있다. 그녀는 갑자기 집안이 몰락한 후 그 여파로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자는 순진한 일념으로 만주행 기차에 오른다. 물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준다고”(26면.) 해서 떠난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가 조우한 것은 전쟁-기계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살벌한 폭력과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

피가 내 얼굴을 지웠어…….

열네 살이었을까. 열다섯 살이었을까.

군인이 뱀처럼 긴 칼로 내 머리를 내리쳤어.
정수리에 금이 가더니 피가 솟구쳤어.
내 얼굴을 지우며 피가 흘렀어.
그 피를 닦는 데 60년이 걸렸어.

밤이 되면 군인들이 왔어.
군인들만 왔어.(22~23면.)

열세 살 나를 가지고 놀던 군인은 몇 살이었을까.
문구점에서 산 병아리를 가직 놀 듯 나를.
나는 세 개.
내 살갓빛 부리를 으스러뜨렸어.
날갯짓 한 번 못 한 내 날개를 꺾었어.
개나리 꽃잎 같은 내 발가락을 뭉갯어.
큰오빠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군인이었어. 아버지보다도.
내 몸에서 피가 났어. 손바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무르팍이 아니라
다른 곳.
태어나 한 번도 피가 나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무서워서 울자 나를 번쩍 들어 공중으로 던졌어.
나는 날아올랐다 군화를 신은 발들 앞에 떨어졌어.

군인들, 군인들만 왔어.

열세 살 때 죽었는데 아흔한 살이래. 죽은 사람도 나이를 먹어.(39~40
면.)

그러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몸이 나빠져 집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총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에 또 다시 중국에 가서 위안부가 된다. 만주와 중국은 다른 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까닭이고, 누구의 말이건 남의 말을 의심하지 않은 까닭이다. 거기에 순진하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결정적인 오인 하나. “만주 거기 같은 데는 아니겠지 했어……거기 같은 데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43면.) 또 한 차례의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자 조선으로 돌아온다. 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배라고 해서 타고 도착한 곳은 인천.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는다/못한다. 말하자면 그녀는 귀향을 포기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한다.

나를 창피해하는 사람들, 나를.

내가 창피하대.

엄마도 내가 창피할까, 창피해서 안 찾았을까.

아무도 나를 안 찾았어. 아무도.

창피하니까 나를 안 찾는 거겠지 했어.

그래서 나도 나를 안 찾았어.(59면.)

이후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여기저기 술집을 전전하기도 하고, 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싶어 한 남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집부수는 남자였고, 그와 헤어진 후 아들을 입양하기도 한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대해 ‘이 생생에는 나가 세 개나 되네’(8면.)라고 정리한다. 열세 살 위안부가 되기 이전, 위안부 시절과 위안부의 트라우마를 감추며 살아야 했던 호모사케르적 시절, 그리고 위안부라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녀들을 집요하게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시키는 세상과 싸우며 살고 있는 현재.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아 사이를 오가며 홀로-여럿의 주체(권명아의 표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근대 이후 더욱 가속화된 남근중심주의적 통치성의 단순한 피해자는 아니다. 그녀는 전쟁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그녀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세상으로부터 단순히 동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여성, 더 나아가 전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다.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하늘나라에도 군인이 있을까./군인이 있는 데면 나 안갈래.’(25면.) 할 정도 그녀의 순수한 몸과 영혼을 짓밟았던 남근주의적 통치성을 두려워하고 혐오하지만 그래도 선한 존재들이 만들어갈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잃지 않는다. “사람이 열 명 있으면 착한 사람이 아홉, 나쁜 사람이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나쁜 사람 하나에게 받은 상처를 착한 사람 아홉이 보듬어주니까./군인들 중에는 착한 군인도 있었어.”(67면.)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이 남근중심주의적 통치성의 구조를 균열시키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력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여성 주체들이 ‘말해야 해’라고 선언한다.

여자가 얼마나 아플지 내가 잘 알지. 여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했으니까.//“말하고 싶지 않지?”//“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했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여자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내가 참으라는 것은 아픔을 참으라는 뜻이지 말을 참으라는 뜻은 아니야.”//“말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기차가 오지 않았어.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부끄러워하지 마.”//“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야.”//“네가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야.”//“네 잘못이 아니야.”(94~95면.)

이렇게 그녀는 그녀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않는 존재로 영원히 폐기처분하려는 남근주의적 통치성의 견고한 구조를 뚫고 전세계 고통받는 여성들의 말문을 틈워주고 그 목소리를 합쳐가는 탈-존적 존재로 거듭난다.

『천사』는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열된 말들을 통해 그녀들의 고통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연유한 것인지 그리고 그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 그녀들이 얼마나 전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무질서한 말들을 통해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한다. 한마디로 『천사』는 그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그녀들을 단순히, 그리고 여전히 일본 제국의 희생양 아니 호모 사케르적 존재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탈식민적 운동을 이끄는 전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천사』야말로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모적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읽어낸 바로 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죄의식과 죄의식의 윤리성 - 『송고함은 나를 들어다보는 거야』의 경우

『천사』가 지근거리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생애를 받아 적은 소설이라면, 『송고함』은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 전체, 그것도 전생에서부터 현생, 그리고 전미래까지를 받아적은 소설이다.

여기 그 시대의 여성상에 비하자면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러나 견고한 남근주의적 통치성에 비하면 턱없이 미약한 힘을 지닌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는 줄 알고 정신대에 끌려간다. 그렇게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그것도 밤에만 움직이는 배를 타고 ‘광둥, 홍콩,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98면.) 등을 옮겨

다닌다. 가보니 그곳은 ‘군복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군인 받는 공장’(72면.)이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지옥도의 그것인 삶이 시작된다.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왔어.
 군인을 하루에 열다섯 명 정도 받았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넘게 받았어.
 일요일에는 아침 여덟 시부터 저녁 다섯 시까지 군인들이 왔어.
 저녁을 먹고 있으면 장교들이 어스름을 망토처럼 두르고 왔어.
 밤늦게 온 장교가 새벽까지 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76~77면.)

이 지옥과 같은 삶을 그녀는 나를 지우는 것으로 버텨낸다. ‘군인들에게 끌려다닐 때,/나는 나를 찾지 않았어./해방되고 다들 나를 찾을 때도,/나만 나를 찾지 않았어.//나 없이 살았어, 나 없이……’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나이를 잊는다.

해방이 되고 운 좋게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나이를 알려줘서 제 나이를 가늠할 뿐 그녀의 나이를 알기조차 두려워하는 삶을 오로지 견뎌낸다. 그녀의 외상적 경험이 그녀에게 잠시의 일상적인 삶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나 그곳에서의 경험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고, 그런 고통의 흔적과 기억을 덮어두고 누구와 사랑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함께 하기를 너무도 간절하게 원하는 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못한 채 안타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지내는 기이한 생활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렇듯 그녀는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아야 했고 전쟁-기계들이 전쟁 후에 그러했듯 전쟁의 잔여물 때문에 기계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아니, 기계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어느 날 문득 그녀 자신

을 떠올릴 때마다 밀려드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귀환 이후 그녀의 외상적 삶의 고통은 『송고함』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내 손 잡지 마./ 다른 손이 내 손 잡는 거 싫어리는 말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 말 속에 그녀가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생체정치의 폭력성과 젠더적 폭력이 고스란히 그 잔여물로 남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녀는 그녀의 고통을 위무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수치로 바라보는 듯한 주변의 시선 속에서 수치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에 처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살던 그녀는 그녀 자신을 찾기로 한다. 그곳에서의 외상적 기억이 견디기 힘들어 어쩌다 돌아오는 그 순간을 힘겹게 억눌러 왔건만 어느날 문득 자신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가족들을 잃게 된 것. 그녀들의 가족들은 그녀를 수치스러워한다. 그녀에게 그런 고통을 안긴 존재들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세상의 일방적인 희생자인 그녀를, 마치 그녀의 고통이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라는 듯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에게 그녀 자신을 찾기 말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결국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가족의 끈마저 끊어버린다. 이렇게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한 번 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거니와, 세상은 이렇게 그녀를 끊임없이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다.

그런데 『송고함』의 그녀에게 두드러진 정동이 죄책감 혹은 죄의식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역사의 가장 가혹한 피해를 당한 존재가 죄의식이라니! 그런데, 그렇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변의 수많은 존재들이 추악한 삶을 피해 죽음을 택할 때 그 외중에 살고자 몸부림쳤으며 또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살아남은 자 특유의 죄의식일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가 행했던 반사행동에 대한 뒤늦은 자책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를 부정하고 동시에 타인을 속여야 했던 그녀의 삶에 대한 회한 혹은 회의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송고합』의 그녀의 죄의식은 다음과 같은 역사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할 길이 없었어.
 전생이 아니며,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면,
 내가 겪은 일들을.(29면)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상상 속에서도 상상되어 본 적이 없는 이 잔혹한 경험과 혹독한 고통을 치러야 하는지를 용납할 수가 없다. 용납은커녕 납득할 수조차 없다. 그 결과 인간이 발명한 통치성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이자 그 통치성에 순종하는 신체로 전락한 ‘평범한 악’들에 의해 호모사케르로 전락한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구조적 폭력 혹은 폭력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전생에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운명으로도 받아들여야만 이 극한의 삶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죄의식은 그녀를 독특한 시간 속에 살게 하는 것은 물론 그녀를 실제적 윤리의 실천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녀는 기계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적인 노력일 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녀는 인트라망의 세계 속에 산다. 전생을 포함한 과거는 물론 현재를 살 뿐 아니라 동시에 전-미래까지도 앞당겨 산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의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지금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음생을 포함한 전-미래에 더욱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는 시간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트라망적 세계감은 급기야 그녀를 실제적 윤리의 주체로 승화시킨다.

나는 말을 못해.
말로 짓는 죄도 있어.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한다지만,
나는 말이 무서워.
한 말을 되씹고 되씹어.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말은 꼭 했어야 했는데.

그 말, 그 말, 그 말……(41면.)

자신이 한 말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무엇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까지를 자기화하여 반성하는 이 태도야말로 실제적 윤리의 구현자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 윤리는 궁극적으로 그녀를 두 지점으로 이끈다. 하나는 스스로 부정하던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그녀는 끝내 스스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뚜렷이 천명한다. 물론 이 행위에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큰 언니가 말렸어.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그래도 나를 찾고 싶었어./ 예순두 살에 나를 찾으려고 신고했어./신고하고 큰언니가 발을 끊었어./우리 아버지, 엄마 제사 지내주는 조카들까지.(136면.)’ 그녀가 자신을 찾으려 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를 적극 말린다. 그래도 그녀가 자신이 중군위안부이었음을 선언하자 모두들 그녀곁을 떠나간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단을 접지 않는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다. 그녀는 이 각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 그녀는 그녀의 몸에 끔찍한 고통과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 개개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 역시 전쟁

에 동원된 한갓 순종하는 신체들이었음을 이해한 때문. 그녀는 용서한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용서한다. 말하자면 데리다적 의미의 진정한 용서의 경지에 오른다. 그리고 화해를 꿈꾼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전쟁-기계로 몰아간 그들의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국 용서-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만행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할 터인데, 그들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들의 만행 자체를 부인한다. 결국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상태에서 일본 제국과 제국의 전쟁-기계들의 반성과 사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숨고함』은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수 없는 용서의 아포리아 상태로 마무리한다.

『숨고함』은 이처럼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고통과 상처를 꿰뚫히게 그려내면서도 또한 그녀가 그 상처를 딛고 숭고한 존재로 올라서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이 모두가 지근거리에서 구두법과 절분법을 활용하여 그녀의 말을 듣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하여 그녀의 저 안에 웅크리고 있는 말들을 길어올렸기에 가능했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숨고함』 역시 『천사』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획시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전도된 수치심의 역사와 죄의식이라는 윤리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격렬한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아니, 이 표현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실상에 맞게 바뀌 표현하자면 더 교활하고 뻔뻔해진 적들이 그녀들을 또 한 차례 전쟁터로 끌어들이며 그녀들을 다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전쟁을 활용하려

는 양국의 정치적 세력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도가 높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사이에 적대감도 고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엷히고설켜 도대체 풀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는 사태의 추이를 되짚어보면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의 길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양국 간의, 그리고 양국민 간의 우호 관계가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 여기 악의 존재 가능성조차 감지하지 못하던 순진무구하던 그녀들이 있다. 그런데 일본 제국과 제국의 하수인들이 작당해 그 순진무구한 존재들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아니면 강압적 계약을 통해서 전쟁터로 끌고 간다. 그녀들이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것은 전쟁-기계들에 의한 일상적인 전시 강간이다. 이 일상적인 전시 강간은 그때까지 인류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그 고통과 치욕으로 인해 그녀들의 몸과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 이것이 팩트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그녀들에게 이런 고통과 치욕을 겪게 했던, 그리고 스스로 그 어떤 존재도 차마 저질러서는 안될 일을 실행에 옮긴 그들, 그러니까 제국과 제국의 전쟁-기계들의 그들의 만행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이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하며, 곧바로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거듭 사과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한 번의 사죄로 용서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사죄-용서-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뜻밖의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 우리가 확인했듯 『천사』와 『송고함』의 그녀들이 이미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고 있는 까닭이다. 제국의 전쟁-기계들이 그녀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 덮고 싶을 정도로 처참하고 처절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들은 전쟁-기계들 중 많은 존재들이 광기의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임을 헤아려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표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일본 제국과 일본 제국의 전쟁-기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벌이는 이 악마적인 전쟁은 끝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한데 일본 제국과 제국의 전쟁-기계들은, 또 그들의 후예들은 사죄는커녕 그들의 죄를 덮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야스퍼스나 아렌트가 말했듯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리 책임’ 혹은 ‘집합 책임’을 지거나 어떤 불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죄’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⁸⁾. “우리가 완전히 무고한 것들의 결과들을 스스로 떠안는 일은 우리가 홀로 자신의 사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⁹⁾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도 “우리는 아직도 한국으로부터 지난 전쟁 당시의 중군위안부제도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사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일조약으로 법적 절차는 끝났다거나, 한국에 이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했으니 언제까지고 같은 문제로 불평하지 말라는 식으로 짜증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쟁피해에 대해서 패전국은 사실상의 무한책임은 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배상을 했으니 책임질 것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전승국이나 구식민지로부터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가 없는 것¹⁰⁾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제국은 그들이 그 시기에 저질렀던 후안무치의 죄악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기는커녕 실제 저지른 바로 그 짓에 대한 책임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녀들에게 그러한 치욕을 안겨준 자신

8)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엘피, 2014. 및 한나 아렌트, 서유경 옮김, 『책임과 판단』, 필로소피, 2019. 참조

9) 한나 아렌트, 위의 책, 202면.

10) 인용은 우치다 다츠루의 말. 우치다 다츠루의 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김형수 옮김, 「한일관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녹색평론』, 2019년 5-6월, 37-38면.

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그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인 그녀들 때문에 자신이 추악하다고 믿고 그 거울이야말로 왜곡된 것이라 주장한다. 심지어는 그 거울을 치워버리려 한다. 피해자인 그녀들만 없으면 자신들이 추악한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피해자인 그녀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녀들을 그들의 자발적인 협력자로 만들고자 사실을 왜곡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물론 일본의 위정자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이가 있다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고통을 겪으신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인간으로서, 또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을 포함과 동시에 그러한 극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죄송한 심정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가장 극렬하게 부인하고 폄훼했던 아베의 말이다. 그런 아베가 이런 말을 했으니 일본이 일본-제국의 과거의 만행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베는 이 말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사죄를 기다리는 희생자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 앞에서 한다¹¹⁾. 희생자들은 외면한 채 미국 대통령에게 사죄하는 아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강자에겐 굽히고 약자에겐 강한, 그래서 약자에게 죄를 인정하는 것을 수치로 죄악 시하는 그들의 특유의 역사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우리는 전도된 수치심의 역사라 부를 수 있을 터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심을 덮고 오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때도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사죄해야 할 자들이 사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복잡한데, 여기

11) 아베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나카 도시유키, 김형수 옮김, 「역사의 기억을 뺐는 아베 정권」, 『녹색평론』, 2019년 9-10월, 52면. 참조.

에 또 하나의 변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때도 그랬듯 이 전쟁에서 사죄하지 않는 일본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제국보다 더 지독한 논리를 펼치는 한국인들이 있는 까닭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그녀들의 상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아가 그 고통 속에서도 탈-존적 존재로 도약한 그녀들의 잠재성을 존중하기는커녕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 부끄러워야 해야 할 존재들이 따로 있는데도 그녀들에게 부끄러우니 숨어살라고 강요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들을 신격화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그녀들의 치욕적인 삶에 가장 책임이 큰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전쟁은 중층적인 갈등들로 뒤엉켜 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더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우호 관계의 길도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그녀들의 치욕과 고통에 대한 '대리책임' 혹은 '형이상학적 죄'를 나누어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녀들의 고통'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까닭이다. 우리는 그녀들을 그런 치욕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는 대신 그녀들의 발설 때문에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오히려 그녀들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된 수치심 때문에 그녀들의 삶은 더욱 더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일관되게 전도된 수치심의 역사의 연속인데 그 역사에 의해서 호모사케르적 삶을 강요받은 그녀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은 인간이 감내할 범위의 것이 아니다. 전쟁 중에서도 그러했고 돌아와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녀들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리의 구현자들이 되었다. 심지어 그녀들은 그녀들에게 상상을 넘어서는 폭력을 가했던 군인들에게 그들 역시 전

쟁의 희생자들일 뿐이라고 이미 용서한 상태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다. 그녀들은 짓지 않은 죄를 대신하는 존재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그녀들은 살아 있는 진리의 구현자들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은 그녀들을 볼모로 잡아 다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결코 자유로워서도 안된다. 우리가 묻지 않을 때 그녀들의 삶은 또 다시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 그녀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들의 고통을 듣는 것이다. 일관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차가 뒤섞인 그녀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녀들의 발설 때문에 인간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은 그녀들의 발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녀들을 그런 고통과 치욕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집합책임’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는 무한반복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모두, 서둘러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와 『승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를 읽자.

| 참고문헌 |

1. 참고자료

-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김숨, 『호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김숨,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현대문학, 2018.
김숨, 『승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2. 참고문헌

-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한나 아렌트, 서유경 옮김, 『책임과 판단』, 필로소픽, 2019.
루스 베네딕트, 김윤식·오인석 옮김,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2010(5판 6쇄).
자크 데리다, 배지선 옮김, 『용서하다』, 이숲, 2019.
자크 데리다, 배지선 옮김, 『거짓말의 역사』, 이숲, 2019.
자크 데리다, 신정아·최용호 옮김, 『신앙과 지식/세기와 용서』, 아카넷, 2018.
카를 야스퍼스, 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엘피, 2014.
브루스 핑크, 맹정현 옮김,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옮김, 『분명 여기에 뼈 하나가 있다』, 인간사랑, 2016.

하토야마 유키오, 김형수 옮김, 「한일관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녹색평론』,
2019년 5-6월, 32~43면.
다나카 도시유키, 김형수 옮김, 「역사의 기억을 뺏은 아베 정권」, 『녹색평론』, 2019년
9-10월, 50~61면.
와시다 키요카즈, 김주희 옮김, 『듣기의 철학』, 아카넷, 2014.

<Abstract>

A history of perverse shame and a time of guilt

Ryu, Bo S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ad two peculiar novels by Soom Kim that were recently published, *Have you ever wished a soldier to become an angel* and *The sublime is looking into me*. These two novels represent the homo sacer life of comfort women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from the existing novels. Existing novels projected the writer's eyes on the lives of war comfort women in order to narrate and contextualize their lives, but these two novels minimize the writer's intervention. Just listening and transcribing it, we can call it a punctuational testimony novel in Lacan's words. Through these new methods, the two novels most realistically depict the suffering of comfort wome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t the same time,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beings who are crouching in the form of their existence or the possibility of ex-sistence. It cannot be said that this is a noteworthy achievement.

Key words: Soom Kim, *Have you ever wished a soldier to become an angel*, *The sublime is looking into me*, Wartime comfort women (or Japanese army sex slaves), punctuational testimony, Homo sacer, Shame and guilt, Reflection and forgiveness

투 고 일: 2022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